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08월

석사학위 논문

국내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황 다 영

국내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연구

A Meta-Analysis of Effect of Prevention Repeated
Conviction Program for Violence Behaviors Youth in Korea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황 다 영

국내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연구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황 다 영

황다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문제	5
제 3절. 용어의 정리	6
1. 폭력	6
2. 청소년	6
3. 징계·처분	6
4. 프로그램	7
제 2장 이론적 배경	8
제 1절. 폭력의 개념 정의	8
제 2절 청소년 폭력행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11
제 3절 폭력가해청소년 집단프로그램	13
제 4절 메타분석	15
1. 메타분석의 개요	15
2. 메타분석의 절차	16
3. 메타분석에서 유념해야할 사항	17
제 3장 연구 방법	18
제 1절 연구 대상	18
1. 연구자료 선정 기준	18

2. 연구자료 수집 방법	20
제 2절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	21
1. 효과크기	21
가. 효과크기 공식	21
나. 효과크기 해석	23
2. 자료 처리 및 분석	24
가. 자료의 코딩	24
나. 자료의 분석	25
제 4장 연구결과	26
제 1절 연구논문들의 일반적 특징	26
1. 연구논문의 출판연도와 형태	27
2. 연구논문의 구성이론	28
3. 프로그램 측정변인	29
4. 연구대상의 프로그램 참가경로	30
5. 연구대상의 성별	31
6. 연구대상의 연령	32
7. 실험집단크기	33
8. 프로그램 진행 장소	34
9. 프로그램 총 진행 회기 수	35
10.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	36
11. 프로그램 운영기간	37
12. 연구자의 전공 영역	38
제 2절 치료효과 전체 효과크기	39

1, 전체 효과크기	39
2. 출판편향 결과	40
제 3절 하위유목에 따른 효과의 크기	43
1,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효과크기	43
가. 프로그램 구성이론에 따른 효과크기	43
나. 연구자의 전공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44
2. 프로그램 측정도구 및 설계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45
가. 프로그램 측정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45
나. 프로그램 참가경로에 따른 효과크기	46
3. 프로그램 연구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47
가.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	47
나.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	48
4.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른 효과크기	49
가. 실험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	49
나.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따른 효과크기	50
다. 프로그램 총 진행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51
라.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52
마.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53
제 4절 메타회기분석	54
1. 총 실시 횟수에 따른 효과	54
2.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	56
3. 집단의 크기에 따른 효과	57
제 5장 결론 및 논의	58
제 1절 결과에 대한 논의	58

제 2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65
참고문헌	67
부록 1 코딩 메뉴얼	73
부록 2 메타연구 대상 논문	74

표 목 차

표 1. 분석 대상 논문 선정기준(PICOS)	19
표 2. Cohen의 효과크기 기준	23
표 3. 코딩 항목	24
표 4. 연구논문의 출판연도와 형태	27
표 5. 연구논문의 구성이론	28
표 6.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측정변인	29
표 7.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프로그램의 참가경로	30
표 8.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성별	31
표 9.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연령	32
표 10. 연구논문의 실험집단 크기	33
표 11.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진행 장소	34
표 12.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총진행 회기 수	35
표 13.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	36
표 14.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운영시간	37
표 15. 연구논문의 연구자 전공 영역	38
표 16. 전체효과 크기	39
표 17.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 검증 효과	41
표 18. 전체변인의 효과크기	43
표 19. 연구자의 전공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44
표 20. 프로그램 측정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45
표 21. 프로그램 참가경로에 따른 효과크기	46
표 22. 프로그램 대상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	47
표 23. 프로그램 대상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	48
표 24. 프로그램 실험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	49
표 25.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따른 효과크기	50
표 26. 프로그램 총 진행 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51
표 27.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52
표 28.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53

표 29. 총 실시 횟수에 따른 효과(메타회귀분석) 54
표 30.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56
표 31.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57

그림 목차

그림 1. 메타분석 절차	16
그림 2. PRISMA flochart	20
그림 3. Funnel plot	40
그림 4. 각 연구 별 효과크기의 forest plot	42
그림 5. 총 실시 횟수에 따른 효과(메타회기분석)	54
그림 6.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메타회기분석)	56
그림 7. 집단의 크기에 따른 효과(메타회기분석)	57

ABSTRACT

A Meta-Analysis of Effect of Prevention Repeated Conviction Program for Violence Behaviors Youth in Korea

Hwang Da Young

Advisor : Prof. Kweon Hae Soo Ed.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revention repeated conviction program on the violent behaviors youth in Korea. As a research method, we used meta - analysis method which can calculate average effect size by synthesizing various effects.

The research problem 1 was to obtain the average effect size of prevention repeated conviction program for violent behaviors youth. The research problem 2 is to obtain the difference of effect sizes according to the sub characteristics, First,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program, second, the averag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program measurement tool and design method, Third, the averag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research subject of the program, and fourth,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operation method of the program.

The target papers were 18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nd journals published from 2003 to 2019. Meta-analysis was selected among the 126 papers selected from the first selected papers, and the final analysis was selected after data col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inal research selection process (PRISAM). Based on these data,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a specialized program for

meta-analysis, was utiliz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2 effect sizes were calculated from 18 papers. In the homogeneity test, the effect size was sampled in the homogeneous group. The mean effect size value calculated using the random effect is 0.878, which is larger than 0.8 according to the standard proposed by Cohen (1988). Therefore, the program for preventing recidivism of juvenile violence victims is significant.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program composition, the art therapy program (ES = 1.083) and the cognitive therapy program (ES = 0.883) were large effect sizes. Second,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variables of the program showed that the ego (ES = 1.399), When the program participation path was school discipline (ES = 1.040) the effect size was higher than the judicial system disposition (ES = 0.871). Third,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of sex and age of the study subjects was the largest effect size of the program consisting of male teenagers (ES = 1.314) and 14-16 years old (ES = 1.029).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program operation method, the number of program was less than 10 (ES = 1.158), the total number of sessions was 14 (ES = 1.168) (ES = 1.20) and the duration of program operation was over 5 weeks (ES = 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prevention repeated conviction program for violent behaviors youth were verified.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effect size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ubcomponents of the program (program composition, measurement tools and design method, study subjects, program operation method). We hope that the result obtained by integrating each research result through this study will be a practical guideline in the design of prevention repeated conviction program for violent behaviors youth and I hope that it will help constitution and progress of prevention repeated conviction program for violent behaviors youth.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과도기로 신체적, 정신적 및 실존적 의미에서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긴장과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삶의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위험과 기회, 좌절과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하다(Erikson, 1968).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2017)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총 범죄 중에 미성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이며, 이중 학생 범죄자의 비율은 75.9%로 초등학교생 0.1%, 중학생 17.6%, 고등학생 41.6%이다. 더불어 미성년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력 범죄(30%), 절도(27%), 지능범죄(13%), 교통범죄 (13%), 강력범죄(3%) 순이다. 미성년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률은 절도, 폭력 범죄, 지능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Wolfgang(1994)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적은 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이 전체 비행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들은 체포가 되거나 법정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인이 된 후에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청소년들의 재비행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폭력 범죄로 인해 법적 처분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폭력의 정의를 김준호(1997)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서명석, 이금룡, 1999, 재인용), 김상균(1999)은 ‘다양한 공격 행위 중에서 타인에게 극심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허경미(2006)는 ‘인간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인간의 공격적인 행위’로 보고 인간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문분야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폭력 가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학문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론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비행 관련 특성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과 예방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은 주로 청소년 개인의 신경심리학적 문제나, 환경적 차원에서 가정이나 학교, 또래 친구, 기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로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변인 중 하나가 공격성이며(송혜정, 2013; 민수홍, 2005; 이애령, 2004),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공격 성향의 기질이 주요한 배경 혹은 원인이라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성상희, 2013; 김주영, 2011; 김연미, 2010; 안지현, 2007). 박소은(2008)은 MMPI-A의 결과를 통해 폭력 가해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경조증·편집증·정신분열증·반사회성 성향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더불어 폭력가해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김연미, 2010),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높으며 비합리적 사고에 의해 행동하여(장양지, 2001), 감정이나 욕구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안지현, 2007).

한편 이러한 위험요인들과 비행 가능성과의 깊은 관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을 반드시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등장한 개념이 보호요인이다(Rutter,1985). 즉,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위험요인의 영향을 수정하고,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보호요인도 위험요인처럼 개인요인(문제해결력, 자기통제력 등), 가족요인(부모의 정서적지지, 애착, 가족적응력 등), 학교·지역사회 보호요인(교사의 지지, 학교적응도 등), 또래요인(친구의 지지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과 개입 전략으로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하는 접근이 위험요인을 동반한 그들의 행동들을 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Durlak, 1998), 문제행동의 시작과 유지 등을 적절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폭넓게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Arthur, Hawkins, Pollard, Catalano, and Baglioni Jr, 2002). 따라서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별상담, 교육, 집단프로그램 등에서 위

험요인은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은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다.

Yalom(1975)는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으로 희망 고취, 보편성, 정보를 나눔, 이타주의, 사회화하는 기술의 발달, 모방적 행동, 감정의 정화, 최초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반복, 실존적 요인, 집단 응집력, 대인관계적 학습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집단프로그램은 개인상담과 달리 한 명 또는 소수의 상담자가 여러 내담자들에게 동시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내담자가 상담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며, 학교나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개인상담에 비해 비밀유지의 한계가 있으며, 개인에 대한 관심이 미약함 등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은 동료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집단 중심적이고 어른보다도 동료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동료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청소년들에게는 집단 상담이 적합하다(이형득, 한상철, 1995).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청소년센터·보호처분 기관 등에서 집단프로그램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분노/자기조절 프로그램(배영희, 2016; 김하강, 2015; 유정임, 2013; 황진규, 2010; 양은자, 2003),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최상열, 2015; 김해인, 2016; 최상열, 2014; 고희일, 2004),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강민규, 2016; 이광열, 2013),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원운형, 2017; 김화숙, 2008)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향상, 학교 적응유연성, 또래관계 향상, 문제해결기술훈련 등에 초점을 둔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근매, 2015; 김정은, 2016; 안영옥, 2013; 김주섭, 2000),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집단상담(김슬아, 2017; 문석주, 2008; 주영신, 2005), 미술치료(강봉희, 2015; 김진희, 2014; 최상열, 2014; 안영옥, 2013), 명상활용(원운형, 2017; 강민규, 2016; 염영미, 2012), 음악치료(김인숙, 2017), 영화치료(김화숙, 2008)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과 매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을 줄이거나, 보호요인을 늘려 재비행 혹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 변인의 실제 효과성을 밝히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변수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에 특정 변인이 폭력 가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며, 동일한 주제를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가 반복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의 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적인 단일 연구의 분석 차원을 넘어 기존 관련 연구의 효과크기(effect-size)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Meta-analysis) 연구 방법으로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나 경찰로부터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메타분석 연구로는 박상근(2013)과 나재은(2016)의 학교폭력 연구가 있다. 우선 박상근(2013)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처치방식(예방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과 실시형태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르기에 다양한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리를 위해 Comprehensive meta analysis v2 연구방법을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임상적 대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3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고,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큰 평균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 치료프로그램이 예방프로그램보다 평균효과크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임상적 대표성은 69.44%라는 점도 밝혔다.

나재은(2016)의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측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 및 분석을 통해 가해학생 재발 방지, 피해학생 외상 치유 등 효과적인 학교폭력 사후개입 집단프로그램 개발에 일조하고자 R의 meta 패키지(Schwartz, 2015)을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프로그램 요인 별 효과크기 비교를 통해, 피해학생 정서능력 향상과 가해학생 공격성, 충동성 감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전체 효과크기와 각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연구들에서 실시된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R의 meta 패키지를 통해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추후 청소년 폭력 가해 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증거 기반 연구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요인에 의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감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여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점과 시사점을 제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단일 연구의 분석 차원을 넘어 기존 관련 연구의 효과크기(effect-size)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Meta-analysis) 연구 방법으로 폭력 가

해로 인해 학교나 경찰로부터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여 살펴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개별 연구들에서 실시한 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추후 청소년 폭력 가해 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증거 기반 연구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요인에 의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감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여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점과 시사점을 제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절 연구문제

연구문제1.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위 특성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가 있는가?

- 2-1.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이론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2-2.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측정도구 및 설계 방법(측정도구, 참가경로)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2-3.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성별, 연령)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2-4.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실험집단 크기, 진행 장소, 총 회기 수, 회기 당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제 3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19편의 연구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고자, ‘폭력’, ‘청소년’, ‘징계·처분’, ‘프로그램’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폭력

본 연구에서는 폭력을 범죄학에서 분류하는 폭력 범죄의 유형을 토대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및 정신·심리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는 광범위한 정의를 하며, 유사강간·기타 강간·강제추행은 제외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청소년(靑少年)에 대한 연령규정은 법률적으로 다양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성인으로 인정받는 19세 이상을 제외한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폭력 가해 행위로 인해 학교나 경찰에 의해 처분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소년법」에 소년으로 지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칭하고자 한다.

더불어 흔히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말로대신하기도 하며,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징계·처분

소년법원 판사는 소년법에 의거해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며,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①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보호관찰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병원, 요
 양소에 위탁하는 것 ⑥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⑦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의 보
 호처분 결정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자 한다.

더불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교육상 학생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
 한 사항을 학칙으로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규정은 각 학교의 기준이 다르
 므로 각 학교에서 규정된 바에 의해 징계처분 된 학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4.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프
 로그램을 시행한 구조화 또는 반구조화집단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
 에서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훈련, 심리치료, 처치 등을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훈련, 훈련 프
 로그램, 심리치료, 처치 등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지
 칭들을 통칭하여 ‘프로그램’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폭력가해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하기에, 폭력행동 감소, 재폭
 력 방지, 공격성 감소 등의 목적을 갖고 실시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폭력의 개념 정의

국내외 학자들마다 폭력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을 ‘타인에게 신체 및 정신·심리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는 광범위한 정의를 하였다.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폭력행위를 검색했을 때, 관련 주제어로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을 볼 수 있다. 먼저, 학교폭력을 살펴보면 따돌림의 개념을 제시한 학교폭력 초기 학자 Olweus(1997)는 학교폭력은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 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한 학생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따돌림, 폭력,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부정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2013) 제2조 1항에서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폭력 가해자보다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김은주, 2016; 장안식, 2013; 김수진, 정원철, 2015)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을 경험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는 결과가 있다(김재엽 외, 2015; 염영미, 2011).

2018년 1차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교육부, 2018), 2013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후, 2013년에는 1.1%였던 가해 응답률이 2018년에는 0.3%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7년 7월 발생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과 같은 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관련 청원이 올라와 약 29만 명의 동의 의견이 게시되는 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조직화·은밀화, 가해 여학생의 증가 현상 등으로 여전히 학교폭력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는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추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 등의 결과가 나타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 반복적으로 가해 행동이 발생하고, 성인기의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Farrington & Loeber, 2000).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면 범죄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으로 인해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분석하였다.

더불어 전통적인 학교폭력은 상대방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현실 공간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앞서 말한 2018년 1차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또 다른 결과(교육부, 2018)를 통해, 학교폭력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은 점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어느 장소에서든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하는 사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에서는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나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사이버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가상준 등, 2013; 김경은, 최은희, 2012; 김은주, 정명진, 2016; Kowalski, Limber, Limber, & Agatston,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분의 1 이상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따돌림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는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의 부적응이 사이버 따돌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Beran & Li, 2007; 김은주, 정명진,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으로 인해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은 ‘성’과 ‘폭력’의 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성폭력의 종류인 유사

강간, 기타 강간, 강제추행 등은 경찰청에서 분류한 범죄유형 중 폭력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 속하며,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성과 관련된 범죄는 다른 폭력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으로 인해 학교나 경찰의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청소년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학에서 분류하는 폭력 범죄의 유형을 토대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등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주는 범죄들은 포함하지만, 유사강간·기타 강간·강제추행은 제외하였다.

제 2절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위험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위험요인이란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어떤 질병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황이나 변인을 말한다(Olson,2003) 청소년 비행에서 위험요인의 개념은 비행행동의 인과적 관계 설명하면서 그들의 범죄 행동을 특성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 위험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위험요인과 환경적(가족·학교·사회)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orum. 2000; Garmezzy, 1993; Doh,& Falbo, 1999).

폭력 가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밝힌 선행연구는 드물어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위를 포함하는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을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보면, 개인위험요인들로 공격성, 반사회적 성향, 부정적 정서, 우울, 충동, 비합리적 기대, 불안, 모험심, 조기 비행, 발달적 위험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가족 위험요인으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부적절한 역할 모델링, 가정 불만, 문제행동의 허용정도, 가정불화, 비합리적 양육태도, 가족의 경제적 수준, 학대적 양육태도, 부부갈등, 가족의 범죄성, 부모의 교육수준, 애착 결핍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위험요인은 낮은 학업성취도, 낮은 학습의욕,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습 긴장, 교사의 차별적 애정, 학교에서의 이상행동, 전학 횡수, 부모의 학업에 대한 무관심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위험요인으로는 비행환경, 유해환경 접촉, 사회활동 비참여, 낮은 이웃 애착, 많은 여가시간, 약물취득 용이성 등이 있다(이형석, 2006; 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유성경, 2000; 이에령, 2003; Butcher, 2000; Sharp, 2001; Sharkey, 2003).

하지만 위험요인 속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반드시 부적응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그에 대한 요인을 연구한 결과,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수정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인 보호요인을 발견하였다.

앞서 말한 폭력 가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밝힌 선행연구는 드문 것처럼, 폭력 가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도 드문 편이었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폭력 가해 행위를 포함하는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을 선행연구 결과에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비행 개인보호요인은 자기통제성, 문제해결능력, 인지적

기술, 준법정신, 책임감, 자아존중감, 계획성, 대인관계 기술, 긍정적 가치관, 진학의 중요성 인지, 긍정적 성격, 자신감 등이며, 가족 보호요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요인은 부모의 애착, 가족응집력, 합리적 부양태도이다. 친구보호요인은 친구의 지지, 가까운 친구, 또래의 수용도, 선후배 관계, 또래의 역할 모델, 또래상담 등이며, 학교보호요인은 학교 적응도, 교사의 지지, 학교에 대한 애착, 민주적 학교 분위기, 학습에의 긍정적 가치 등을 포함한다(유성경, 2000; 김선희, 2001; 이애령, 2003; 지승희, 2003; 서정아, 2005; 이석형, 2006; Garnezy, 1993; SearchInstitute, 1998; Butcher, 2000).

이러한 보호요인의 구체적인 기능은 첫째, 직접적으로 역기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둘째, 위험요인과 상호작용을 하여 위험요인에 따른 역기능적인 결과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 셋째, 위험요인이 보호요인과의 매개 사슬을 통해 역기능의 원인이 되는 작용을 할 때에, 이러한 매개 사슬을 붕괴시키는 기능을 한다(민원홍, 2013). 마지막으로, 위험요인의 초기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제공해 주며, 예방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기에 폭력 가해 청소년의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보호요인도 함께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폭력 가해 집단프로그램에서는 위험요인은 감소·거하고, 보호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 3절 폭력가해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입 프로그램으로는 영화를 매개로 하여 인지·정서·행동치료에 기반하여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격성 반사회성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김하강, 2010), 엄영미(2012)는 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상-인지-행동치료 미술 기법을 접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폭력 가해 청소년의 가해와 관련된 개인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 선정한 요인 중 효과 검증에서 자기통제 공격성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서 유의미하게 점수의 변화를 보여 가해 청소년의 가해 행동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화영(2017)은 가해학생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폭력 가해로 인하여 출석정지, 특별 교육, 교내봉사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특별 교육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분노조절 공감능력 증진의 효과를 보였다.

학교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으로는 인지·정서·행동을 활용하여 가해자 중심의 고등학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문석주, 2008), 김지영과 정정숙(2011)은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 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가해 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가해 행동 재발방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오윤신(2009)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폭력 가해학생의 분노조절과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화숙(2008)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폭력 가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은경(2006)과 박은숙(2008)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에게 에니어그램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인관계 향상과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방숙영(2005)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요법을 실시하여 가해 청소년들의 폭력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희영(2011)은 신문 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해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접하게 하여 사안의 원인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조

절하는 법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공격성과 폭력 허용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제 4절 메타분석

1. 메타분석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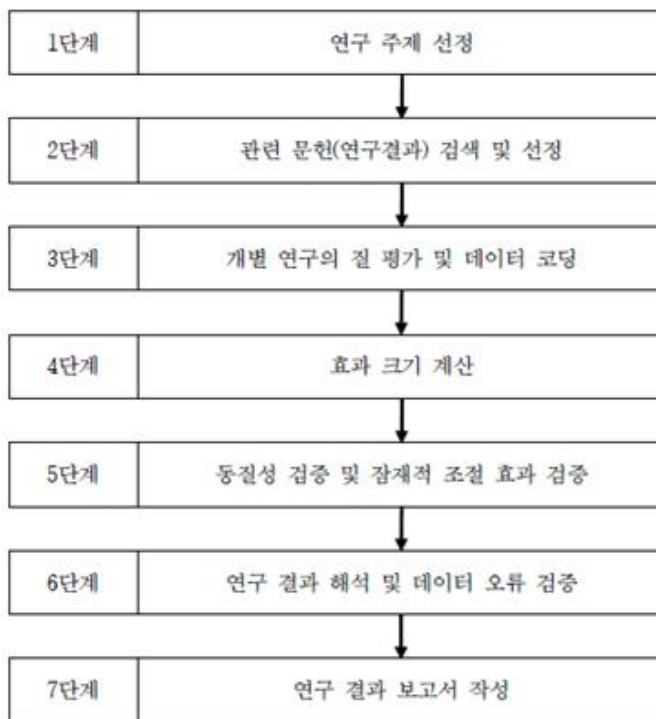
특정한 연구주제와 관련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요약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중 초기에 적용된 방식이 투표식 방법(voting method)이다. 이는 단순히 각 연구결과의 통계적 의의 여부만 따져 보고 개별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식 방법은 어떤 집단이 의의 있게 높다는 사실만 알뿐 구체적으로 집단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표본의 크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실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1970년 이후부터 수량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글라스(Glass, 1976)를 비롯하여 그의 동료가 개발한 메타분석이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결과를 통합할 목적으로 개별 연구에서 얻은 많은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이라고 할 수 있다.(Glass, 1976).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 문제에 대한 누적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량적 연구 방법으로서, 기존의 문헌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른 연구의 편파성을 극복하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요약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통계적인 방법이다(황성동, 2014).

이러한 메타분석의 특징을 Glass(1976)는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 특성은 특정 분야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다양한 결과들로부터 단순한 나열을 뛰어넘어 함축성이며 계량적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효과크기(effect size: ES)를 산출하기 위해 결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하나로 모으기에 상충한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연구들이 모두 수용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결과가 서로 다른 수많은 양적 연구들을 특정 단위로 통합하여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오성삼, 2009).

2. 메타분석의 절차

메타분석에 대한 연구물이 증가하면서 메타분석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국외의 경우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보고 기준이 있고, 국내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의 지침을 참고하여, PRISMA group에 의해 승인을 받은 한국어판 체크리스트로 만든 PRISMA의 보고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신은수, 박은영, 2011). 본 연구에서는 APA 가이드라인과 PRISMA 한국어판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진행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메타분석 절차

(Beyne, 2010; Litell et al., 2008; 황동성, 2016에서 재인용)

3. 메타분석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

Jackson(1980)은 메타분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가 제외되지 않기에 편견이 배제된 모집단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범위, 실험기간과 같은 다양한 정보의 관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메타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기술적 문제도 존재한다. Eysinck(1978)은 메타분석이 가지는 단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모집단을 편견이 배제된 채로 평가하기에 연구 결과의 질이 검토되지 않는다. 둘째, 일반화 과정에서 표집된 연구결과물이 대개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게 검증된 출판물로 구성되어 표집 대표성에 대한 제한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효과크기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밝혔다(김영미, 2014). 첫째, 분석하려는 주제와 관련한 충분한 선행연구결과들이 필요하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존재하는 실험연구로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각 집단에 대한 평균점수, 표준편차, 사례 수, 유의수준 등을 밝히거나, 통계적 변환 공식을 통해 효과크기를 구할 수 있도록 t검정, F검증, 상관계수(r) 등에 의한 통계 값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안전계수라는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편파적 표집으로 인한 종합 결과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이종승, 2013).

따라서 본 연구자는 메타분석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후, 메타분석의 절차에 맞는 연구 설계를 하여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인 재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 대상

1. 연구자료 선정 기준

본 연구는 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물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폭력 가해 행동으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연구의 포함 조건과 제외 조건을 정하기 위해 Littell과 Corcoran 및 Pillai(2008)가 제안한 PICOS(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s)에 따라 메타분석에 포함할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participants: P)로 폭력 가해로 인해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폭력 가해로 인한 처벌 혹은 징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폭력 가해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절도, 교통사범 등)로 처벌/징계를 받은 청소년이 대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논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개입방법(intervention: I)으로 폭력 가해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된 집단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외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목적이 재범/재발 방지가 아닌 프로그램도 제외하였다.

셋째, 비교집단(comparison:C)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비교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넷째, 연구결과(outcomes: O)는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프로그램 목적과 관련된 변화를 보고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치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 및 유의도 수준이 밝혀진 연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통계 값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다섯째, 연구 설계 유형(study designs: S)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순수 실험연구(RCTs)와 유사 실험설계연구(NRCTs)를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기에, 통제집단이 없는 연구와 사전검사가 수행되지 않은 연구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탐색적 연구, 질적 연구, 사례연구, 문헌고찰, 포스터 연구, 초록만 제시한 연구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대상 논문 선정기준(PICOS)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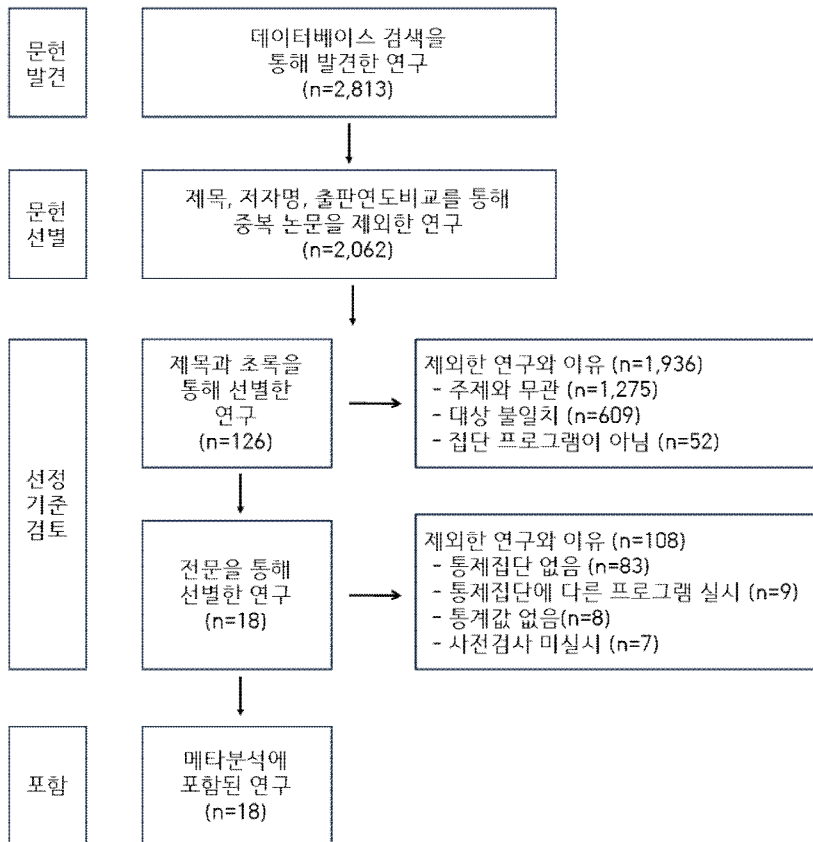
<표 1> 분석 대상 논문 선정기준(PICOS)

기준	포함조건	제외조건
연구대상자 Participants	폭력 가해로 인해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가해로 인해 처벌 혹은 징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폭력 가해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절도, 교통사범 등)로 처벌/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포함한 경우
개입방법 Intervention	폭력 가해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된 집단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목적이 재범/재발 방지가 아닌 프로그램
비교집단 Comparison	실험집단과 비교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	
연구결과 Outcomes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감소 또는 증가와 같은 변화를 보고한 연구	
연구설계 Study desig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 실험연구(RCTs) - 유사 실험설계연구(NR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연구, 사례연구 - 설문조사연구, 탐색적 연구 - 필요한 통계치가 없는 연구
기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동일한 경우 학술지 선택 포스터 연구나 초록만을 제시한 연구 제외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설명되지 않은 연구 제외	

2. 연구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종 연구 선정 과정(PRISMA flowchart; Moher, Liberati, Tetzlaff, & Alsmann, 2009)을 준수하여 자료수집 후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검색어로 ‘폭력 가해’, ‘청소년’, ‘프로그램’, ‘집단상담’, ‘보호 관찰’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전에 폭력에 대한 문헌검색을 검토 하였을 때 유사한 키워드로 검색된 ‘폭행’, ‘공격행동’, ‘공격성’, ‘문제행동’을 2차 검색어로 정하였다. 이후 1차와 2차 검색어의 조합을 국회전자도서관(<http://www.u-lib.nanet.go.kr>)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와 각 대학의 전자도서관을 통해 검색하고, 원문 조회는 주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18편의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림2> PRISMA flowchart (오성삼, 2002)

제 2절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통계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 값을 기초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평균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은 Cohen(1992)의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1. 효과크기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과정 중 분석 대상이 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통계 값들을 하나의 통일된 효과크기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주된 작업 중 하나이다(황성동, 2014). 효과크기(effect size)란 두 개의 집단, 예컨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두 평균치의 차이를 통제집단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것은 두 집단 간의 평균치의 차이 점수를 일종의 단위 표준점수로 나타낸 것이므로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들은 상호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다(Lipscy et al, 2000).

가. 효과크기의 공식

메타분석의 대표적인 효과크기는 표준화된 평균차, 상관계수, 승산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평균차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Glass(1976)가 제안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vec{g} = \frac{X_e - X_c}{S_c}$$

\vec{g} : Glass가 제안한 효과크기

X_e : 사후 실험집단의 평균

X_c : 사후 통제집단의 평균

S_c : 사후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Glass의 공식을 통해 효과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산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Hedge

와 Olkin (1985)은 통합된 표준편차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식은 아래와 같다.

$$g = \frac{X_e - X_c}{S_p}$$

$$S_p = \sqrt{\frac{(n_e - 1)(s_e)^2 + (n_c - 1)(s_c)^2}{n_e + n_c - 2}}$$

g : Hedges 와 Olkin이 제안한 효과크기

X_e : 사후 실험집단의 평균

X_c : 사후 통제집단의 평균

S_p : 사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통합표준편차

n_e : 실험집단의 표본수

n_c : 통제집단의 표본수

s_e : 사후 실험집단의 표준편차

s_c : 사후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한편 메타분석에서는 사례수가 적은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보다 사례수가 많은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를 더 정확하다고 가정하여 사례수가 많은 연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전체 효과크기를 계산한다(Hedge & Olkin, 1985). 연구물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개별 연구물들의 전체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변량가중공식을 사용하여 가중평균을 계산하였다(Hedge & Olkin, 1985).

$$d. = \frac{\sum_{i=1}^k d_i w_i}{\sum_{i=1}^k w_i} \quad w_i = \frac{2(n_{i1} + n_{i2})n_{i1} n_{i2}}{2(n_{i1} + n_{i2})^2 + n_{i1} n_{i2} d_i^2}$$

$$CI_{d.95\%} = d. \pm \sqrt{\frac{1}{\sum_{i=1}^k w_i}}$$

나. 효과크기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을 활용하여 해석하였다. 효과크기의 해석 기준은 <표 2>와 같은 값으로 제시된다(오성삼, 2009).

<표 2> Cohen(1998)의 효과크기 기준

항목	기준	
효과크기	작은 효과크기	≤ 0.20
	중간 효과크기	$= 0.50$
	큰 효과크기	≥ 0.80

2. 자료처리 및 분석

가. 자료의 코딩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하위특성 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성삼(2002)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표 3>과 같이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표 3> 코딩 항목

A. 연구 기초 영역	1. 일련번호			
	2. 연구제목			
	3. 저자명			
B. 출간형태 및 연구자유형	4. 출간연도			
	5. 출간형태			
	6. 연구자 전공			
C. 구성방법	7. 구성이론 및 매체			
D. 측정도구 및 실제방법	8. 측정도구			
	9. 참여경로	1) 교내 징계	2) 사법제도 처분	
E. 연구대상	10. 학교급	1) 초등 ()	2) 중등 ()	3) 고등 ()
	11. 성별/성비	1) 남자 ()	2) 여자 ()	3) 혼성 ()
F. 운영방식	12. 총 회기 수			
	13. 주당 회기 수			
	14. 1회기 운영시간			
	15. 운영 기간			
	16. 집단크기			
G. 효과 크기 계산	17. 실험집단 평균		20. 통제집단 평균	
	18. 실험집단 표집 수		21. 통제집단 표집 수	
	19. 실험집단 표준편차		22. 통제집단 표준편차	

나.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코딩 매뉴얼을 바탕으로 분석대상을 선별하고, 분석대상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코딩표를 작성하여, 연구자인 석사과정생 본인이 코딩을 하였다. 코딩 시 대상 논문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연구마다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다르거나 모호한 경우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불일치를 해결한 후, 코딩에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 연구들의 효과크기와 역변량 가중치, 동질성 검증을 계산하기 위해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2)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CMA2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구 가중치의 영향과 이질의 의미, 고정 효과 및 랜덤 효과의 차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제 4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메타분석에 사용되었던 연구논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 논문들을 통해 도출해 낸 프로그램 효과 전체 효과크기와 하위유목에 따른 효과크기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1절 연구논문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논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의 출판연도와 출판형태, 연구 논문의 구성이론, 프로그램 측정변인, 연구 대상의 프로그램 참가 경로/성별/연령, 프로그램의 실험집단크기/진행장소/총진행 회기 수/1회기 진행시간/운영기간, 연구자의 전공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연구논문의 출판연도와 출판형태

연구논문이 출판된 연도와 출판된 형태를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18편의 논문에 대해 가장 많이 출판된 해는 2013년(5편)이며, 모두 학술지 논문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총 18편 중 11편이 학술지 논문이며, 나머지 7편은 학위논문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표 4> 연구논문의 출판연도와 형태

출판연도	석사	박사	학술지	출판 논문수
2003	1			1
2004	1			1
2010			3	3
2011		1		1
2013			5	5
2014			1	1
2015	1		1	2
2016	1	1		2
2017			1	1
2019	1			1
합계	5	2	11	18

2. 연구논문의 구성이론

연구논문의 구성이론을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성이론은 예술치료(50.00%), 통합적 상담이론(27.78%) 인지치료(22.22%) 순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연구논문의 구성이론

구성이론	논문수(N=18)	백분율(%)
예술치료	9	50.00
통합적 상담이론	5	27.78
인지치료	4	22.22

3. 프로그램의 측정변인

프로그램의 측정변인을 정리한 결과는 <표 6>와 같으며,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변인을 측정할 경우가 잦아 중복하여 빈도를 측정하였다.

<표 6>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측정변인

측정변인	빈도	백분율(%)
공격성	12	31.57
정서	9	23.69
자아	6	15.79
사회적 역량	5	13.16
폭력	4	10.53
기타	2	5.26

4. 연구대상의 프로그램 참가경로

폭력가해 행동을 한 청소년이 대상이었기에, 연구대상 학교 측 의뢰와 사법제도 처분의 경로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프로그램 참가경로를 정리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가자는 교내징계 경로(72.22%)를 통해서 참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7>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프로그램 참가경로

참가경로	논문수(N=18)	백분율(%)
교내 징계	13	72.22
사법제도 처분	5	27.78

5. 연구대상의 성별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정리한 결과는 <표 8>와 같으며,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여자 청소년만 포함된 경우는 없었으며, 혼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어도 비율적으로 남자청소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8>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성별

성별	논문수(N=18)	백분율(%)
남성우위집단	8	44.44
혼성		
여성우위집단	1	5.56
성비 미표기	1	5.56
남자	6	33.33
미표기	2	11.11

6. 연구대상의 연령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의 형태로 학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학급으로 나눌 수 없는 다양한 연령 수준이 포함된 연구도 있기에, 연령으로 통일하였다. 이를 정리한 표는 <표 9>와 같다. 국내 폭력가해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경우 14 ~ 1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61.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연령

연령	논문수(N=18)	백분율(%)
12, 13세	3	16.67
14 ~ 16세	11	61.11
15 ~ 19세	3	16.67
미표기	1	5.56

7. 연구논문의 실험집단크기

연구대상 논문에서 실험집단을 구성한 인원수는 최소 6명 ~ 최대 50명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연구논문의 실험집단크기

실험집단크기	논문수(N=18)	백분율(%)
6	3	16.66
7	2	11.11
9	2	11.11
10	4	22.22
12	1	5.56
18	1	5.56
21	1	5.56
28	1	5.56
29	1	5.56
35	1	5.56
50	1	5.56

8. 프로그램 진행 장소

장소를 정리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우선 프로그램 진행 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기에,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는 교내(33.33%)가 가장 많았으며, 보호관찰소와 사설 상담센터는 각각 16.67%, 11.11%이었다.

<표 11>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진행 장소

프로그램 진행 장소	논문수(N=18)	백분율(%)
교내	6	33.33
보호관찰소	3	16.67
사설 상담센터	2	11.11
미표기	7	38.89

9. 프로그램 총진행 회기 수

프로그램의 총진행 회기 수는 논문에 표시된 회기 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총진행 회기 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총 진행 회기 수로 10회(56.56)인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8회기(22.22%), 12회기(16.66%), 14회기(5.56%)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2>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총진행 회기 수

총진행 회기 수	논문수(N=18)	백분율(%)
8회기	4	22.22
10회기	10	55.56
12회기	3	16.66
14회기	1	5.56

10. 1회기 진행시간

프로그램의 1회기 진행시간을 논문에 표시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60분 이하, 60분 초과 ~ 90분 이하, 90분 초과로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프로그램의 1회기 진행시간을 정리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60분 이하와 90분 초과이 각 38.89%였으며, 60분 초과 ~ 90분 이하는 22.22%였다.

<표 13> 연구논문의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

1회기 진행시간	논문수(N=18)	백분율(%)
60분 이하	7	38.89
60분 초과 ~ 90분 이하	4	22.22
90분 초과	7	38.89

11. 프로그램 운영기간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마라톤집단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난 집단으로 유목화하지 않고 논문에 표시된 그대로 인용하였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정리한 표는 <표 14>와 같다 5주(27.77%)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5주와 가장 근접한 6주(16.66%), 4주(11.11%), 5일(11.11%)이 그 다음으로 비율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외의 기간은 5.56%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4> 프로그램 운영기간

운영기간	논문수(N=18)	백분율(%)
2박 3일	1	5.56
5일	2	11.11
4주	2	11.11
5주	5	27.77
6주	3	16.66
8주	1	5.56
11주	1	5.56
12주	1	5.56
미표기	2	11.11

12. 연구자의 전공 영역

연구자의 전공 영역은 대부분 논문에 표시된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학술지의 경우 다양한 전공 영역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경우 혼합으로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자의 전공 영역을 정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상담심리와 예술치료가 각 27.77%로 가장 많은 연구자의 전공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학(16.66%), 사회복지(11.11%), 교육학(5.56%) 순으로 많았다.

<표 15> 연구논문의 연구자 전공 영역

전공 영역	논문수(N=18)	백분율(%)
상담심리	5	27.77
예술치료	5	27.77
간호학	3	16.66
사회복지	2	11.11
교육학	1	5.56
혼합	2	11.11

제 2절 치료효과 전체 효과크기

1. 전체 효과크기

개별 연구물의 결과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가정에서 동질성 검정결과, 이질성이 $Q=77.842$, $p<.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개별 연구간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질성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I-squared 값이 75% 이상인 경우 큰 이질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이질성 정도($I^2=78.161$)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I^2 값이 25%이면 낮은 수준, 50%이면 중간, 75%이면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질성 정도가 높게 나온 점을 고려하여 표집오차와(sampling error)와 랜덤오차(random error)까지 고려하는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의해 분석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의 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표본에 한해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랜덤효과모형에서의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표본을 벗어나 더 큰 표본에 대해서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랜덤효과모형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전체 평균차 효과크기는 0.878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평균차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효과크기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평균차를 해석하는 기준은 0.3은 작은 효과크기, 0.5은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0.8 이상은 큰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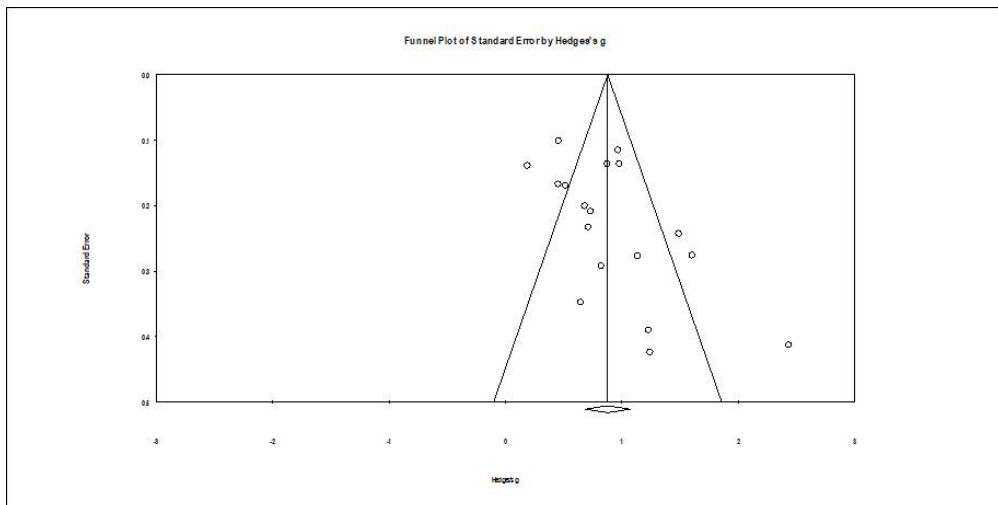
<표 16> 전체 효과크기

K	ES	95% CI		Q	p-value	I^2
		Lower limit	Upper limit			
18	0.878	0.685	1.072	77.842	0.000	78.161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2. 출판편향 결과

메타분석 연구자가 선행연구 모두 수집하지 못하고 일부 연구만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출판편의는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결과분석을 하기 전에 메타분석에 사용될 표본의 편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심의보, 2015). 출판편의가 있는 경우 전체효과크기가 과대 추정되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하게 되고 표집 된 연구들이 좌우대칭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Borenstein et al, 2009). Duval과 Tweedie(2000)의 Trim and Fill은 깔때기 도표에서 표준오차에 따른 효과크기의 분포와 비대칭적일 경우, 보고되지 않은 효과크기를 추정하여 채워 넣음으로써 대칭적인 분포를 만들어 편향되지 않은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Funnel Plot을 이용한 Trim and Fill 방법은 표본크기가 작아질수록 한쪽으로 효과크기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출판 편의 문제가 없다면 그래프는 좌우대칭이 된다(정영미, 조한익, 2015).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모든 연구를 포함되었거나 대상이 되는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분석결과는 출간된 연구의 결과가 모든 연구의 결과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성동, 2014; Rothstein, 2008).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Duval과 Tweedie(2000)의 Trim and Fill의 방법을 사용하여 출판편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였다. 출판편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3 > Funnel plot

메타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먼저 위에 [그림]에서 제시된 Funnel plot을 통해서 시각적인 편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교적 안정적인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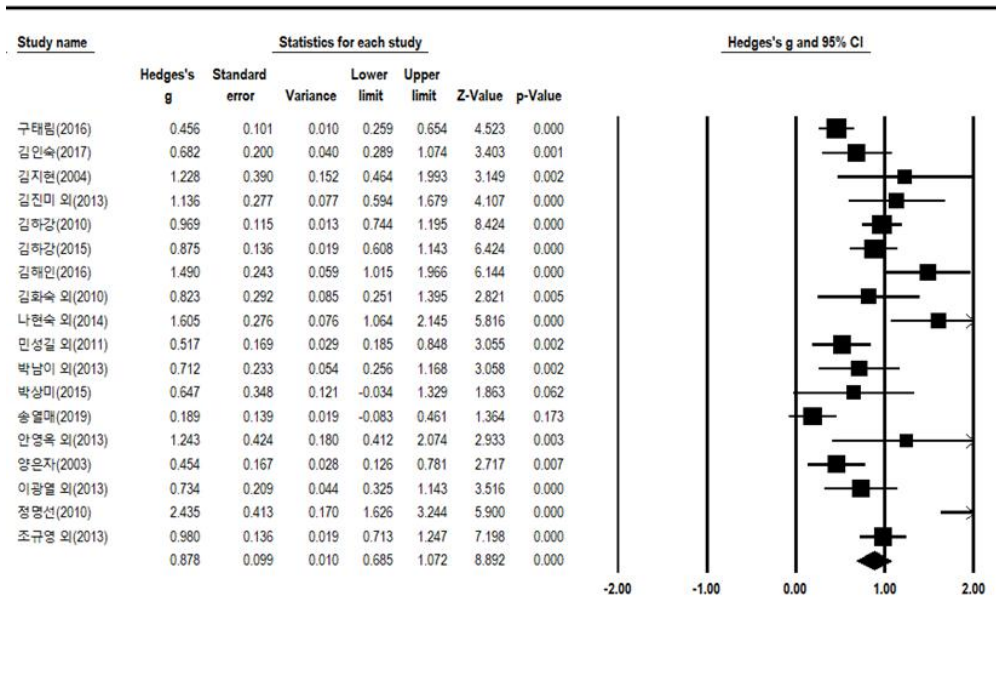
앞서 시각적인 편향여부의 탐색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수치화된 방법으로 출판편향을 검증하였다. Duval & Tweedie(2000)의 추정치 가감법(trim & fill)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조율된 연구물의 보정 값과 관찰 값이 같아서 출판편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추정치 가감법(trim & fill)은 만약 표본수가 적은 연구가 요약 크기 왼쪽보다 오른쪽에 많으면 왼쪽에 있어야 할 연구들이 없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trim & fill 방법은 없어진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분석에 그 연구들을 추가하여 요약 효과크기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보정 값과 관찰 값이 동일하였으며 따라서 출판편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7>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검증 결과

	보정된 연구물	효과크기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관찰 값	-	0.878	0.685	1.072
보정 값	0	0.878	0.685	1.072

각 연구별 효과크기의 값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forest plot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각 연구별 효과크기의 forest plot

제 3절. 하위유목에 따른 효과의 크기

1.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효과크기

가. 프로그램 구성이론에 따른 효과크기

<표 18> 전체변인의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예술치료	30	1.083	0.824	1.341	0.000
인지치료	21	0.883	0.604	1.161	0.000
절충적 상담이론	21	0.692	0.427	0.958	0.000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예술치료의 효과크기가 1.083, 인지치료의 효과크기가 0.883, 절충적 상담이론의 효과크기가 0.692로 분석되어, 예술치료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절충적 상담이론의 효과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프로그램 전공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표 19> 연구자의 전공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예술치료	19	1.140	0.789	1.492	0.000
혼합	11	0.913	0.518	1.308	0.000
상담심리	18	0.875	0.555	1.195	0.000
간호학	13	0.851	0.522	1.180	0.000
사회복지	7	0.836	0.302	1.369	0.002
교육학	4	0.461	-0.104	1.026	0.110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간호학의 효과크기가 0.851, 교육학의 효과크기가 0.461, 사회복지의 효과크기가 0.836, 상담심리의 효과크기가 0.875, 예술치료의 효과크기가 1.140, 혼합의 효과크기가 0.913으로 분석되어, 예술치료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담심리의 경우 효과크기가 0.875로 나타나 0.8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교육학의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호학, 사회복지, 상담심리, 예술치료, 혼합의 경우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프로그램 측정도구 및 설계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가. 프로그램 측정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표 20> 프로그램 측정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자아요인	13	1.399	1.011	1.787	0.000
사회적 역량	5	1.241	0.683	1.799	0.000
기타요인	2	1.002	0.174	1.830	0.018
공격성	25	0.831	0.564	1.097	0.000
정서요인	20	0.743	0.458	1.028	0.000
폭력	7	0.523	0.108	0.938	0.013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공격성의 효과크기가 0.831, 사회적 역량의 효과크기가 1.241, 자아요인의 효과크기가 1.399, 정서요인의 효과크기가 0.743으로 분석되어, 자아요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가해요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프로그램 참가경로에 따른 효과크기

<표 21> 프로그램 참가경로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교내 징계	43	1.040	0.809	1.272	0.000
사법제도 처분	25	0.871	0.597	1.144	0.000

* ‘미표기’로 분류된 효과크기 사례 수(K)는 연구결과에서 제외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교내 징계의 효과크기가 1.040, 사법제도 처분의 효과크기가 0.871로 분석되어, 교내 징계의 효과크기가 사법제도 처분의 효과크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프로그램 연구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가.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

<표 22> 프로그램 대상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남자	20	1.314	0.979	1.650	0.000
혼성	42	0.737	0.534	0.941	0.000

* ‘미표기’로 분류된 효과크기 사례 수(K)는 연구결과에서 제외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남자의 효과크기가 1.314, 혼성의 효과크기가 0.737로 분석되어 남자의 효과크기가 혼성의 효과크기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

<표 23> 프로그램 대상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12 ~ 13세	14	0.816	0.421	1.211	0.000
14 ~ 16세	38	1.029	0.792	1.267	0.000
15 ~ 19세	15	0.849	0.510	1.188	0.000

* ‘미표기’로 분류된 효과크기 사례 수(K)는 연구결과에서 제외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12~13세의 효과크기가 0.816, 14~16세의 효과크기가 1.029, 15~19세의 효과크기가 0.849로 분석되어, 14~16세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른 효과크기

가. 실험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

<표 24> 프로그램 실험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10명 미만	24	1.158	0.838	1.479	0.000
10명 이상~20명 미만	25	0.859	0.578	1.139	0.000
20명 이상	23	0.830	0.578	1.082	0.000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10명 미만의 효과크기가 1.158, 10명 이상~20명 미만의 효과크기가 0.859, 20명 이상의 효과크기가 0.830로 분석되어, 10명 미만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명 이상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따른 효과크기

<표 25>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교내	15	1.469	1.010	1.927	0.000
사설상담센터	13	0.841	0.429	1.252	0.000
보호관찰소	14	1.346	0.870	1.823	0.000

* ‘미표기’로 분류된 효과크기 사례 수(K)는 연구결과에서 제외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교내의 효과크기가 1.469, 보호관찰소의 효과크기가 0.841, 사설상담센터의 효과크기가 1.346으로 분석되어, 교내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내, 보호관찰소, 사설상담센터의 경우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프로그램 총 진행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표 26> 프로그램 총 진행 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8회	13	0.847	0.476	1.219	0.000
10회	45	0.944	0.744	1.143	0.000
12회	10	0.657	0.248	1.066	0.002
14회	4	1.168	0.409	1.927	0.003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14회의 효과크기가 1.168, 10회의 효과크기가 0.944, 8회의 효과크기가 0.847, 12회의 효과크기가 0.667로 분석되어, 14회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표 27> 프로그램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60분 이하	30	0.716	0.462	0.970	0.000
60분 초과~120분 이하	36	1.039	0.806	1.273	0.000
120분 초과~180분 이하	6	1.200	0.700	1.701	0.000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60분 이하의 효과크기가 0.716, 60분 초과~120분 이하의 효과크기가 1.039, 120분 초과~180분 이하의 효과크기가 1.200으로 분석되어, 120분 초과~180분 이하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60분 이하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표 28>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K	ES	95% CI		p-value
			Lower limit	Upper limit	
1주 이하	11	0.753	0.374	1.132	0.000
1주 초과~5주 이하	37	0.909	0.682	1.135	0.000
5주 초과	17	1.000	0.657	1.343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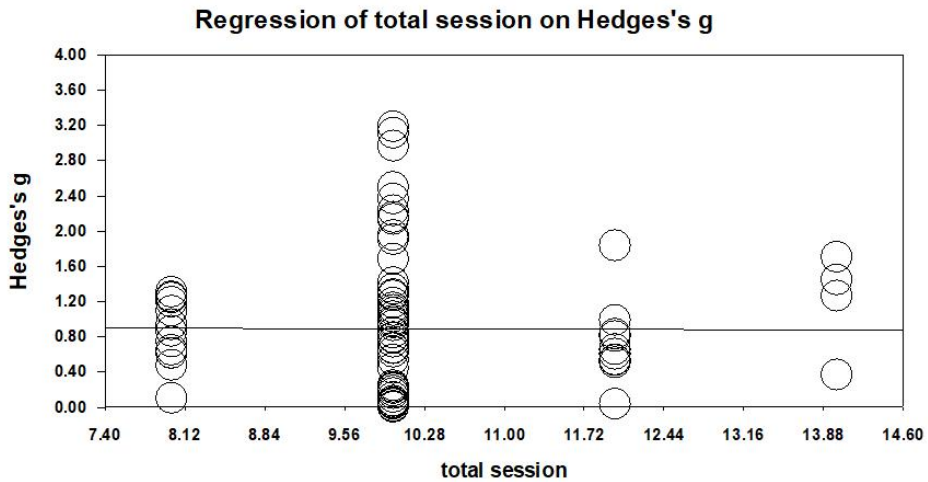
* K 효과크기 수, ES 효과크기, 95% CI - 95% 신뢰구간

1주 이하의 효과크기가 0.753, 1주 초과~5주 이하의 효과크기가 0.909, 5주 초과의 효과크기가 1.000으로 분석되어, 5주 초과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주 이하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크기는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4절. 메타회기분석

1. 총 실시 횟수에 따른 효과

총 실시횟수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그림 5>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5> 총 실시 횟수에 따른 효과

<표29> 총 실시 횟수에 따른 효과

	Point estimate	Standard error	Lower limit	Upper limit	p-value
Slope	-0.003	0.057	-0.115	0.108	0.955
Intercept	0.925	0.581	-0.213	2.064	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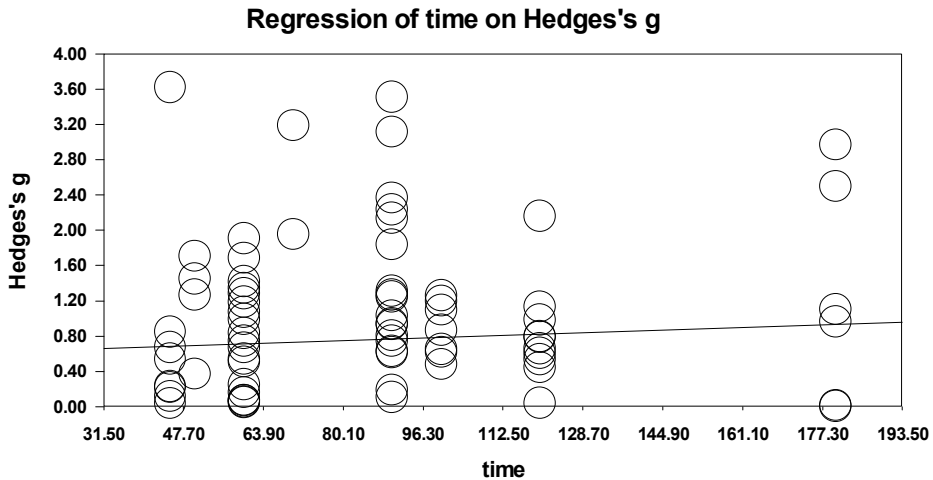
* Point estimate 효과크기, Standard error 표준오차, 95% CI - 95% 신뢰구간

메타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울기 계수가 -0.003으로 나타났으며 하한선은 -0.115,

상한선은 0.108였다. 총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lope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횟수가 9~11회 정도일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

시간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6>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

<표 30> 총 실시 횟수에 따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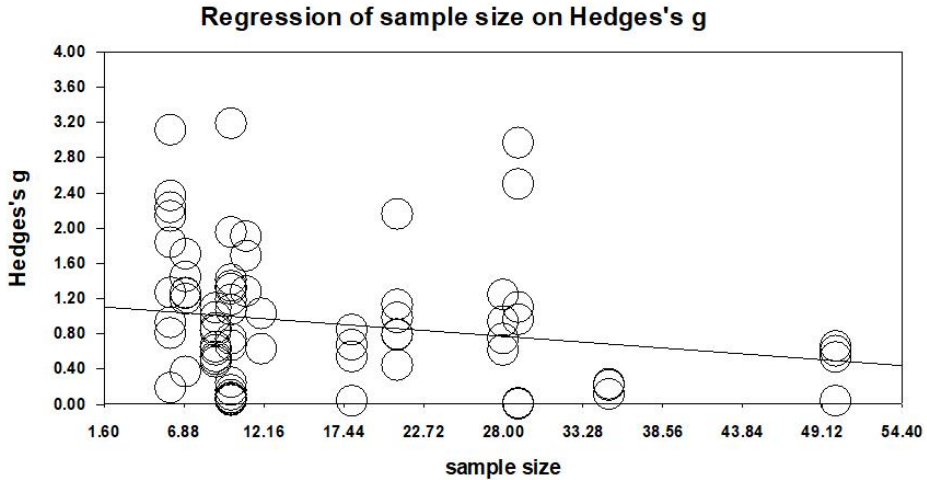
	Point estimate	Standard error	Lower limit	Upper limit	p-value
Slope	0.002	0.001	0.000	0.004	0.019
Intercept	0.522	0.107	0.313	0.731	0.000

* Point estimate 효과크기, Standard error 표준오차, 95% CI - 95% 신뢰구간

메타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울기 계수가 0.002로 나타났으며 하한선은 0.000, 상한선은 0.004였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집단 크기에 따른 효과

집단의 크기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그림 7>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7> 1회기 진행시간에 따른 효과

<표 31> 집단 크기에 따른 효과

	Point estimate	Standard error	Lower limit	Upper limit	p-value
Slope	-0.013	0.006	-0.025	0.000	0.039
Intercept	1.127	0.140	0.854	1.400	0.000

* Point estimate 효과크기, Standard error 표준오차, 95% CI - 95% 신뢰구간

메타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울기 계수가 -0.013으로 나타났으며 하한선은 -0.025, 상한선은 0.000였다.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에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장 결론 및 논의

제 1절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과정(PRISMA)과 선정기준(PICOS)을 충족한 18편의 연구물로부터 효과크기 사례 수 72개를 산출하였다.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를 알아보고, 각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에 비쳐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 7편과 학술지 11편, 총 18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72개의 효과크기를 추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들이 모두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랜덤효과모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0.878로 Cohen(1988)이 제시한 해석 기준에 따르면 큰 효과크기로 볼 수 있다. 이에 유사한 선행 연구인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박상근(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박상근(2013)의 연구에서는 36편의 연구물에서 132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1.145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인 전체 평균 효과크기 0.878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박상근(2013)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효과크기 차이는 연구방법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논문의 선정 기준을 다르게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박상근(2013)의 연구는 독립변인을 학

교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독립변인을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으로 하였기에 메타분석 과정에 다소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결과는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여 국내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높은 효과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을 집단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상담자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된 결과 재범방지에 큰 효과를 보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 평균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본 연구가 학교폭력 대상 프로그램으로써 실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내 치료 효과 검증 연구가 임상 현장이 아닌 실험연구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보다는 연구 상황에서 치료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Weisz, Doss, & Hawley, 2005), 국내 치료 효과의 경우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구훈정, 최승미, 권정혜, 2012)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2-1.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구성이론 및 연구자의 전공영역)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본 연구 결과 프로그램 구성이론에 따른 효과크기는 예술치료, 인지치료의 효과크기가 0.8 이상이었으며,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해석 기준에 따르면 큰 효과크기로 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치료 프로그램($ES=0.883$)보다 예술치료 프로그램($ES=1.083$)이 효과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수정(2011)의 연구결과 이론적 접근에 따른 집단상담 프로그램($ES=1.07$)보다 놀이, 음악, 미술 등의 보조자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ES=1.26$)이 효과적으로 나온 점과 이유미(2003)의 연구에서 응용기법을 사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주요접근법보다 1.06 효과크기만큼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변미희(2002)의 아동·청소년 상담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 REBT 상담이 효과크기가 1.74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

다.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예술치료가 인지치료보다 프로그램 효과가 크다 혹은 적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치료와 인지치료 중 어떤 구성이론이 더 효과적인지를 논하는 것보다, 예술치료와 인지치료 각각 효과크기가 높은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구성이론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예술치료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결과는 박혜정과 이미옥(2009)의 연구결과 일반청소년대상 미술치료보다 위기청소년 대상의 미술치료에서 더 큰 효과크기를 가지는 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소유하여 활동성이 강하고, 인지 발달로 인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시기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려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박준하, 2011).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 특징을 고려한 프로그램 활동이 집단상담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인지치료의 높은 효과크기와 김계현 외(2002), 변미희(2002), 홍경자 외(2001)의 연구에서 각각 인지행동상담이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결과의 부합하였으며, 이 외에도 인지치료적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선행논문들을 통해 이미 확인이 되었다. 이렇듯 인지행동상담의 효과가 큰 이유는 문제 행동 자체를 교정하기보다는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꿈으로써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략 때문으로 추정된다(김경희, 2017; 유옥현, 2009).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인지치료를 통한 개입은 출현한 시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연구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지행동상담의 정확한 분석과 처치는 감독을 거친 수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김정범, 2000). 인지치료는 구조화된 인지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자가 이러한 과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나 방법으로 내담자를 대한다면 상담효과는 상담자의 개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인지치료의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련을 받은 전문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절충적 상담이론($ES=0.692$)은 보통 효과크기이다. 한 가지 상담 이론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상담과정의 단조롭고 경직될 우려가 있는데, 절충적 상담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을 접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프로그램 효과가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각의 상담이론은 기본 철학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각 이론 간에 상충된 논리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 이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2-2.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측정도구 및 설계 방법(측정변인, 참가경로)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첫째, 프로그램의 측정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ES=1.399)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이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성은(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관련(ES=2.87), 자아관련(ES=1.78)으로 나왔으며, 안지선(2013)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결과 자기효능감(ES=2.98)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반면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효과크기를 나타낸 폭력(ES=0.523)과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크기가 적은 공격성(ES=0.831)과 관련하여 각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 집단 프로그램 목표의 구체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변인의 난이도 등에 대한 추가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 18편 중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없었으며, 교내 징계 혹은 사법제도 처분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참가경로에 따른 효과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내 징계와 사법제도 처분 모두 0.8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어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교내징계(ES=1.040)이 사법제도 처분(ES=0.871)보다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내징계의 경우 사법제도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이기에 그만큼 사법제도 처분보다 상대적으로 폭력가해의 빈도, 심각성 등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프로그램 개입 시, 교내징계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이 사법제도 처분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보다 프로그램보다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가 커, 그 결과 교내 징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의 효과크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2-3.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성별, 연령)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첫째,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ES=1.314$)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ES=0.737$)보다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집단의 동질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이질적인 집단보다 동질적인 집단의 효과크기가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모든 연령의 효과크기가 0.8 이상이었기에 Cohen(1988)이 제시한 해석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에게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14~16세($ES=1.029$)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하지만 초등학교 대상의 프로그램 효과크기가 가장 크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효과크기가 작아진다는 연구결과(박상근, 2013; 유수정, 2011; 김계현, 2002; 김동일, 200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가 가장 큰 효과를 보인 연구(박미영, 2018; 허지영, 2017)와 학교급별 차이분석 결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연구(원재순, 2018; 김계현 외, 2002) 등 선행연구의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효과크기는 각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표집오차, 대상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론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15~19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의 효과크기가 14~16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의 효과크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집단의 이질성과 관련하여 추측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국내 연구에서 14~16세는 중학생으로, 15~19세는 중·고등학생 혼합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포함하였기에, 학급보다는 연령으로 나뉘었다. 그렇기에 15~19세는 14~16세에 비해 학급상 이질적인 집단이며, 이질적인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에 비해 프로그램 성과가 낮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면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4. 폭력 가해로 인해 학교·경찰 등에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실험집단 크기, 총 회기 수, 1회기당 진행 시간,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첫째, 실험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는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집단($ES=1.158$)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실험집단크기가 커질수록 효과가 조금씩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메타회기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경인(2013), 조영미(2016), 이현경(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실험집단이 대규모인 프로그램의 경우보다 실험집단의 크기가 적을수록 큰 효과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집단의 규모가 커서 상담자가 집단 참여자의 역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 상담자가 집단 참여자 개개인의 정서를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해주면서 집단 역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험집단크기라면 프로그램 효과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Corey, Corey & Corey, 2001).

둘째, 총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가장 많은 진행된 회기 수인 14회($ES=1.168$)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재순(2018)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의 메타회기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회기 수가 클수록 프로그램 효과크기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수정(2011)의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14회 이상($ES=1.25$)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김계현, 이운주, 왕은자(2002)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회기수가 10회 미만보다 10회 이상일 때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집단 프로그램은 단기간보다는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1회기당 진행시간은 120분 초과 ~180분 이하($ES=1.20$), 60분 이하~120분 초과($ES=1.039$), 60분 이하($ES=0.716$) 순으로 효과크기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이유린(2016)의 보호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연구 결과 60분 이하($ES=1.086$)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할 경우 정규 수업시간에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Corey와 Corey 및 Corey(2012)의 연구결과와도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5주 초과($ES=1.00$), 1주 초과~5주 이하($ES=0.909$), 1주 이하($ES=0.753$) 순으로 효과크기가 컸다. 그렇기에 운영기간이 길수록 효과크기가 크

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김혜은(2013)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6주부터 변화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학교 혹은 보호관찰소 등 현장의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에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집단상담 총회기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은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이론들을 고려하여 집단을 계획하고, 다양한 구성이론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모색의 필요성과 이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제 2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큰 효과크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폭력가해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구성이론과 연구자의 전공영역에 따라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이는 명확한 차이를 입증하는 통계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방향성과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셋째,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성별 및 연령, 실험집단 크기, 프로그램 진행 장소, 총 진행회기 수, 주당 회기 수, 1회기 진행시간, 총 운영기간별로 정리하여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별 효과크기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최적의 조건과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축척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대한 전반적인 비교는 이루어졌으나, 메타분석의 분석대상이 충분히 많지 않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 재범방지를 위한 통제된 집단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논문은 양적연구 중에서 메타분석이 가능한 것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분석이나 질적인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성과연구에 치중하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 보고서나 소감문, 관찰일지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하는 등 과정-성과 연구를 연계한 다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이기에 종속변인이 재범방지이어야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마친 후, 폭력가해 청소년의 재범여부를 추적조사한 연구는 단 2편에 불과하였으며, 재범여부는 질적변수이기에 종속변수로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각 연구물에서 폭력가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절변인 혹은 매개변인을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렇기에 조절변인 혹은 매개변인 개입을 통해 폭력가해 청소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추측할 뿐, 직접적인 재범방지 효과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어떻게 하면 재범방지 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 염두한 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력가해 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 효과를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효과크기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직후의 성과만 확인했을 뿐, 지속적으로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므로 향후 연구들에서 재범여부를 추적조사하여 추후 어느 기간까지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폭력에 대한 관점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적 공격까지 살펴보면서, 남자 청소년만큼 여자 청소년의 폭력 가해 비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여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폭력가해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 단일집단의 사례의 부족으로 여자 청소년 단일집단의 효과크기는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높은 효과크기가 나온 남자 청소년 단일집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 단일집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남자 청소년 단일집단과 여자 청소년 단일집단의 재범방지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폭력가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척도와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개별적인 연구 결과들을 하나의 공통 척도로 변환하여 비교할 수 있는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어떤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지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 연구 성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내려는 시도를 한 것이 재범방지 효과에 대한 연구 설계 시 실제적인 지침이 되길 바라며 폭력가해 청소년을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가상준, 김강민, 임재형 (2013). SNS 사용문화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11(1), 159-208.
- 경찰청 (2017). 2017년 경찰범죄통계.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구훈정, 최승미, 권정혜 (2012). 국내 아동 청소년 심리 치료 효과 검증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과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 31(1), 43-73.
- 권경인, 조수연 (2013). 용서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5(6), 2269-2290.
- 김경은, 윤혜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경희 (2017). 중학생 분노조절 향상을 위한 인지 정서 행동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3, 47-62.
- 김나진 (2015). 인지행동상담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2005년~2015년 연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신을진, 황애경 (2002). 메타분석을 통한 학습전략의 효과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3, 71-93.
- 김상균.(1999). 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3사교 논문집, 49, 279-308.
- 김수진, 정종원 (2015). 초등학교폭력 가해 관련변인에 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교육방법연구, 27(4), 601-626.
- 김연미 (2010),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 재소 비행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14), 장애아 부모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주, 정명진 (2016).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학교폭력 및 사이버불링 피해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3(7), 87-115.
- 김재엽, 최선아, 임지혜 (2015).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1), 111-135.
- 김정범 (2000). 인지-행동 치료의 발전과정. 생물치료 정신의학, 6(1), 140-149.
- 김준호.(1991).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 한국형사정책연구. 세미나자료집, 4-9..
- 김지영, 정정숙 (2011).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재방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8), 114-159.
- 김하강 (2010).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은 (2013). 여성의 우울에 대한 수용전념치료(ACT)의 효과: 과정변인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화숙 (2008).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가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석주 (2008). REBT를 활용한 가해자 중심의 고등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연구 :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호 (2002). 청소년폭력과 비폭력 비행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45-162.
- 민수홍 (2005).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중단적 분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17-339.
- 박미영 (2018). 발표불안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은 (2008).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숙 (2008).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숙 (2005).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와 사회재적응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근 (2013).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하 (2011). 청소년 기독교 영성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정, 이미옥 (2009). 청소년 미술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미술치료학회, 16(3), 423-444.
- 방숙영 (2005). 독서요법을 통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 개선에 관한 연구 : 중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미희 (2002). 아동·청소년 상담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합리적·정서적·행동적 치료,의 사교류분석,현실치료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4(2), 51-65.
- 서명석, 이금룡.(1999). 청소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1-22.
- 서우경 (2005). 미성취 영재아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상희 (2013).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정 (201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선 (2013).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현 (2007).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학교적응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영미 (2012).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명상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성삼 (2009). 선행연구 결과의 통합과 재분석을 위한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오윤신 (2009).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격성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노래심리치료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경 (2006).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령 (2004).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재순 (2018).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국내 프로그램 개발

- 논문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옥현 (2009).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REBT 집단프로그램 모형개발: Logic Model 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수정 (2011). 아동·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화영 (2017).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기효능감, 분노조절,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승 (2013).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이유린 (2015). 보호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2005).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김진숙 (2018).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9(1), 195-216.
- 조영미, 이동영 (2016). 아동청소년대상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사회적 증진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2), 135-162.
- 최희영 (2011).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격성과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박영사.
- 허지영 (2017). 발표불안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인지행동상담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 임지선, 김왕석 (2001). 메타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본주의적 집단상담과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간의 효과비교. 상담학연구, 2(1), 23-44
- 황성동 (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rthur, M. W., Hawkins, J. D., Pollard, J. A., Catalano, R. F., and Baglioni Jr. ,A. J. (2002). Measuri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othe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Evaluation Review, 26, 575-60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rey, M., Corey, G. (2001).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조현준, 조현재, 문지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96년 출판).
- Corey, M., Corey, G., & Corey, C. (2012).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Groups: Process and Practice 8th ed.*] (김진숙, 김창대, 박애선, 유동수, 전종국, 천성문 역).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원전은 2010년 출판)
- Durlak, J. A. (1998). Comm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successful prevention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4), 512-520.
- Eric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ysenck, H. (1978). An exercise in mega-silliness. *American Psychologist*, p517.
- Glass, G.V.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 3-8
- Hedges, L. V., & Olkin, I. (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Orlando, FL: Academic Press.
- Jackson, G. (1980). Methods for integrative review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 438-484.
- Kowalski, R. M., Limber, S. P. (2013). Psychological, Physic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1), S13-S20
- Lipsey, M. W., & Wilson, D. B. (2001).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ittell, J., Corcoran, J., & Pillai, V. (2008).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 Orwin, R. G (1983),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

- Weisz, J. R.; Doss, A. J.; Hawley, K. M (2005). Youth Psychotherapy Outcome Research: A Review and Critique of the Evidence Ba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37-364
- Wolf, F. M. (1986). *Meta-analysis: Quantitative methods for research synthesis*. Newbury Park, CA
- Wooldredge, J., Hartman, J., Lateessa, E., & Holmes, S. (1994). Effectiveness of culturally specific community treatment for the African American juvenile felons. *Crime and Delinquency*, 40, 589-598.
-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3rd ed.) New York: Basic Books.

부록1. 코딩 매뉴얼(Coding Manual)

1. 일련번호 : 각 연구물에 구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하나의 연구물에 여러 개의 효과크기를 구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는 다른 번호를 부여한다.
2. 연구 제목, 저자명, 출간 연도, 출간 형태, 연구자 유형은 연구물에 기재된 것을 따른다.
3. 구성 이론 및 매체: 프로그램 구성에 이용된 구성 이론과 매체별로 분류한다.
4. 측정변인 : 프로그램의 종속변인인 평가변인을 말한다.
6. 참가 경로 : 프로그램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로를 말한다.
7. 연령 : 연구 대상의 연령을 의미한다.
(학급으로 표시된 경우 학급에 맞는 연령으로 수정한다.)
8. 성별 : 연구 대상의 성별을 의미한다.
9. 총회기 수 : 프로그램에 시행한 총회기 수를 의미한다.
10. 1회기 진행 시간 : 한 회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간(분)을 의미한다.
11. 운영 기간 : 프로그램을 시행한 총 기간을 의미한다.
12. 실험집단 집단크기 : 프로그램의 실험집단 인원의 수를 의미한다.
17. 평균과 표준편차 : 프로그램 직전/직후의 사전/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부록2 메타연구 대상 논문

번호	연구자 (연도)	논문제목	출처	출판 형태
1	양은자 (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 적용이 가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 대학교	석사
2	김지현 (2004)	학교징계명령 청소년의 분노 조절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
3	김하강 (2010)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
4	김화숙 (2008)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가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평가 연구	학술지
5	정명선 (2011)	학교폭력 청소년의 공감훈련 집단미술치료 효과 : 정서공감 및 공격성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연구	학술지
6	민성길 (2011)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명상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
7	김진미 (201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 지도연구	학술지
8	박남이 (2013)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화 교육연구	학술지
9	안영옥 (2013)	집단미술치료가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의 공격성 감소 및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 료학회지	학술지
10	이광열 (2013)	학교폭력 가해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학술지
11	조규영 (2013)	학교폭력 가해경험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 재발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분석 연구	학술지

번호	연구자 (연도)	논문제목	출처	출판 형태
12	나현숙 (2014)	배려증진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학술지
13	김하강 (2015)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분노조절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학술지
14	박상미 (2014)	Space Harmony 요소를 활용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가해청소년들의 공격성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
15	구태림 (2016)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강점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분석	광주대학교	박사
16	김해인 (2016)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석사
17	김인숙 (2017)	보호관찰 청소년의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	학술지
18	송열매 (2019)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을 위한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